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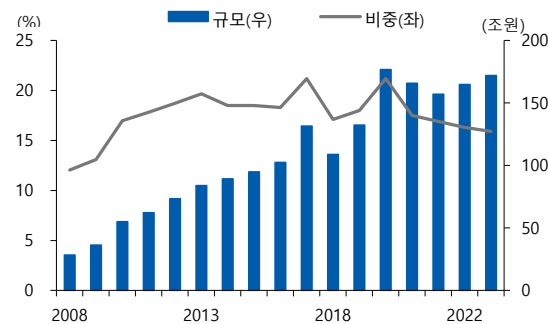


## 연기금, 국내주식 투자 규모는 줄지 않는다

### 1. 국민연금의 주식자산 증가

- 국민연금의 주식 자산 비중은 2022년 44%에서 2027년말 55% 내외로 증가. 채권 비중은 42.5%에서 30%내외로 감소
- 국내주식 비중은 2021년 16.8%, 2022년 16.3%, 2023년 15.9%, 2027년 14%로 줄어들게 됨, 단, 국내주식 투자 규모는 증가
- 2017년 주식시장 강세로 국내주식 비중이 높아졌음. 2021년 이후 국내주식 매도가 이어지면서, 국내주식 투자 비중은 계속 낮아졌음.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은 줄어들이지만, 투자 규모는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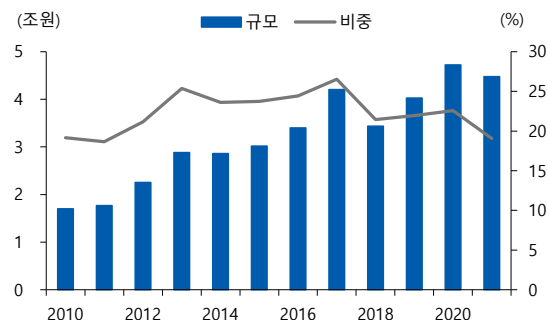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2년부터는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안

### 2. 국내 연기금, 국내주식 비중 증가 추세

- 우리나라의 연기금은 성장 국면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 자산 규모는 증가하는 경우가 많음.
- 교직원 공제회의 국내주식 투자 규모는 증가 추세.
- 사학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은 2017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투자 규모는 증가 추세 유지.

사학 연금, 국내주식 비중은 줄어도 투자 규모는 증가 추세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1. 국민연금의 주식 자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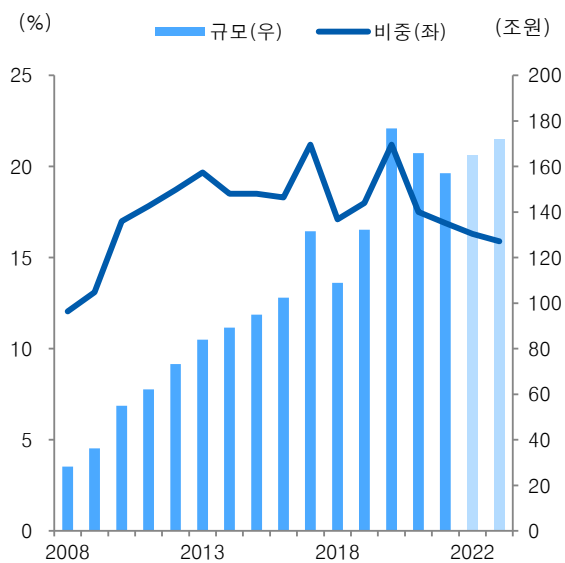
국민연금이 5월 27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2023~2027년 중기자산배분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였다. 2022년 주식 자산 비중은 44.1%에서 2027년말 55% 내외로 늘어난다. 같은 기간 채권 비중은 42.5%에서 30%내외로 줄어든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은 2021년 16.8%, 2022년 16.3%, 2023년 15.9%, 2027년 14%로 줄어들게 된다. 전체 자산 중에서 국내주식의 비중은 줄어들지만, 국내주식의 투자 규모는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은 2015년 512조원, 2018년 634조원, 2021년 949조원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2022년말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주식의 비중이 줄어들더라도, 자산 규모 증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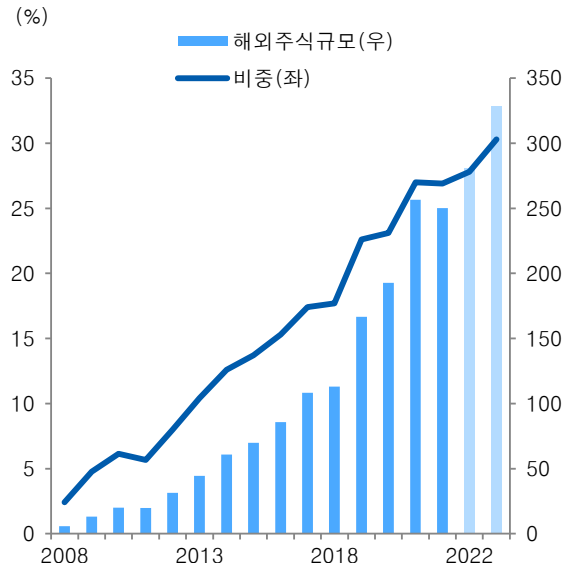
2017년 이후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은 21%를 넘어서기도 하였다. 2021년 이후 국내주식 매도가 이어지면서, 투자 비중은 계속 낮아졌다. 시장 상황에 따라 변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난 2-3년간과 같은 매도는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차트1]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은 줄어들지만, 투자 규모는 증가 예상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2년부터는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안

[차트2]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 규모와 비중은 증가 추세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2년부터는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안

## 2. 국내 연기금, 국내주식 비중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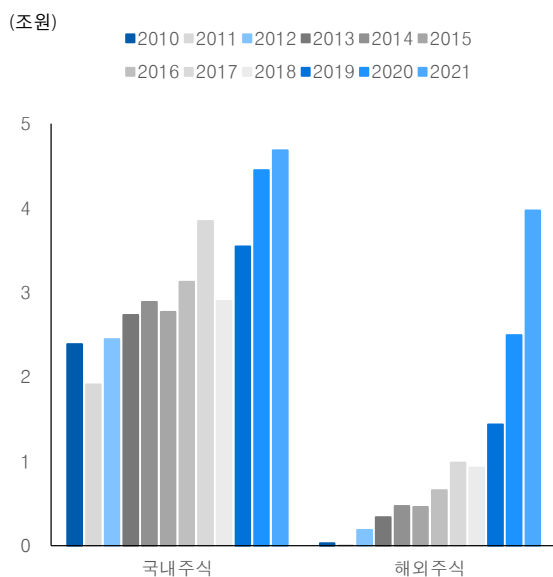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연기금은 성장 국면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 자산 규모는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 연기금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연기금의 주식 자산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주식자산 확대 여력도 있는 편이다.

교직원공제회의 자산 규모는 2011년 12조원에서 2021년 42.4조원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국내주식 투자 규모는 2.4조원에서 4.7조원으로 2배 정도 늘어났다. 교직원 공제회의 해외주식 규모(2021년)는 4.0조원이며, 향후에도 확대될 계획이다.

사학연금의 자산 규모는 2010년 8.9조원에서 2021년 23.5조원으로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국내주식 자산 규모는 1.7조원에서 4.5조원으로 늘어났다. 2017년부터는 사학연금의 국내주식자산 비중은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국내주식 투자 규모는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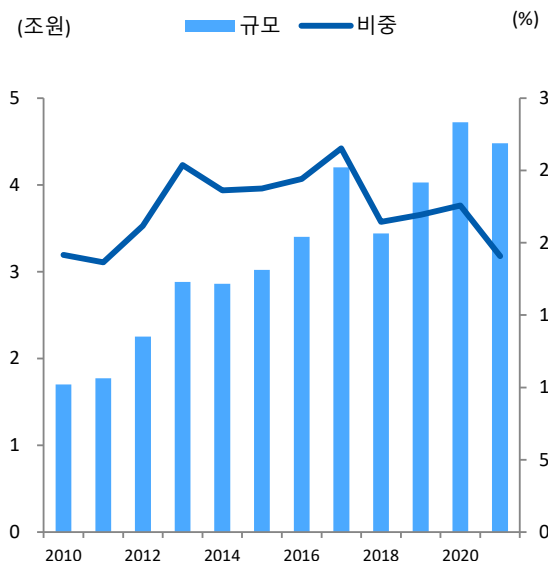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연기금은 아직 성장하는 시기로 자산 증가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산효과와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해외자산의 투자를 늘리고 있으나, 자산 증가 효과로 인해 당분간은 국내주식 등 국내자산은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차트3] 교직원공제회,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비중 모두 증가 추세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사학연금, 국내주식 비중은 줄어도 투자 규모는 증가 추세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